

1. 이육사 광야의 특징으로 아닌 것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①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었다.
- ② 각 연의 행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쓰여졌다.
- ③ 역동적인 심상표현으로 산맥들이 형상화되었다.
- ④ 시인의 현실극복 의지가 자신에 차 있다.

2.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런 문장은?

- ① 할아버지, 올해도 건강하세요.
- ② 이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 ③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격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④ 인간은 신을 숭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에게 도전하기도 한다.

3. "밑줄" 부분이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웃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경솔한 행동을 삼가 해야 합니다.
- ② 연거퍼 전화를 받던 그는, 하루 종일 안절부절 하였다.
- ③ 고생을 낙으로 여기던 그는, 삭월세방도 서슴 진 않고 택했다.
- ④ 내로라하던 그녀도 기일 내 원고를 제출 못하여 뉘달을 당했다.

4. 가, 나에 들어갈 판소리 장단은?

가.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치레를 불작시면 절대 떨어진 현 파립 버릿춤 총총매여 조새갓끈을 달아서 떨어진 현 망근 발뽀관자 종이당줄 두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현 도포 실 따로 총총이어 고픈 배 눌러 띠고 한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들고 서리아 침 찬 바람에 옆걸음쳐 손 을 붙며 이리저리 건너간다.

나. 두손 합장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살려주오. 살려주오 불쌍헌 동생을 살려주오.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어제 점도록 그저있고 어저께 하루를 문드러미 굶사오면 하릴없이 죽사오니 형님 덕택의 살거지다.

벼가 되거는 한 섬만 주시고 쌀이 되거든 닷 말만 주시고 돈이 되거든 닷 냥만 주옵시고 그도 저도 정 주기 싫으시면 니명이사 싸래기나 양단간의 주옵시면 죽게될 자식을 살리겄소. 과연 내가 원통하오. 분하여서 못살겄소. 천석꾼 형님을 두고 굶어 죽기가 원통합니다, 제발 살려주오."

- ① 자진모리, 진양조
- ② 중모리, 중중모리
- ③ 중중모리, 중모리
- ④ 휘모리, 자진모리

5. "밑줄" 부분이 맞춤법에 바른 것은?

보기 좋은 명분 뒤에는 ①철저이 돈별이를 염두에 둔 상업주의가 숨어 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비롯한 이런 저런 미인대회는 흔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된다. 그래서 화장품, 패

선, 방송계와 성형 전문의는 물론 브로커들마저  
 ②한목하곤 한다. ③더욱이 딸에게 '미인자격증'  
 을 안겨주려는 모정까지 가세해 검은 거래마저  
 이뤄지고 있다. ④오랫만에 문화계 소식에 마음  
 이 씩씩하다.

6. (라)의 부분과 유사한 정서가 드러난 것은?

(라) 고갯마루를 넘었다. 어느 새 이번에는 성삼  
 이 편에서 외면을 하고 걷고 있었다. 가을  
 햇볕이 자꾸 이마에 다가왔다. 참 오늘 같은  
 날은 타작하기에 꼭 알맞은 날씨라고 생각  
 했다. - 황순원 : 학

- ①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한 구름 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 서정주, 추천사
- ② 이제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  
 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둡이노라.  
 - 고은, 눈길
- ③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 윤동주, 별헤는 밤
- ④ 보름달아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 신경림, 농무

7. 한문의 음과 뜻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노쇠(老衰) : 늙고 쇠함
- ② 광대(擴大) : 넓고 큼
- ③ 부화(負荷) : 짐을 짊
- ④ 장사(葬事) : 물건을 사고파는 일

8. "사미인곡"에서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정조를 고  
 르면?

瀟灑湘上 南湖畔만도 치오미 이러커든  
 玉樓樓누 高處處쳐야 더욱 닐너 므슴흐리.  
 陽陽春춘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茅모簷檐 비친 히를 玉樓樓누의 올리고져.

- ① 어저 내일이라 그럴 줄을 모로다나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흐노라
- ②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본다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본다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③ 오월 수릿날 아춤약은  
 즘은 해를 장존할 약이라 받잡노이다.
- ④ 누어 생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내몸의 지은 죄 뉘기 뉘사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랴  
 설워 풀터내니 조물의 타시로다.

9. 다음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주제로 옳은  
 것은?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삼월 중군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 ① 비판적 - 가림주구
- ② 서사적 - 곡학아세
- ③ 교훈적 - 도탄지고
- ④ 비관적 - 설상가상

10. 아래 지문 중 밑줄 친 부분을 희곡으로 각색할  
 때 적절한 지문은?

이에 통인(通引)이 탁탁 인(印)을 찍어 그 소리  
 가 엄고(嚴鼓) 소리와 마주치매 북두성(北斗星)  
 이 종으로, 삼성(參星)이 횡으로 찍혀있다. 부자  
 는 호장이 증서를 읽는 것을 쪽 듣고 한참 멍하  
 니 있다가 말했다

“양반이라는 게 이것뿐입니까? 나는 양반이  
 신선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  
 가 없는걸요. 원하옵건대 무어 이익이 있도록 문  
 서를 바꾸어 주옵소서.”

- ① 고래고래 고함지르며
- ② 군수에게 샅대질하며
- ③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 ④ 금방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11. 단어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하게 설명한 것을 고르면?

~그런데 국제회의에 가 보면~

- ① (일파위) 말아서 하다.
- ② (어떤 행사, 격식) 치르거나 겪다.
- ③ 동사의 어미-아/-어 뒤에 쓰이어 어떠한 행위를 시도하다.
- ④ 용언의 어미 -가?, -는가? 짐작 막연한 의향...

12. 다음의 지문과 논리적 오류가 유사한 것은?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 ① 그 정치가는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는 친일파니까
- ② A모양의 상자에서는 B가 나왔다. 그러므로 A모양의 상자에는 무조건 B가 나온다.
- ③ 축구TV 시청을 너랑만 하면 항상 지더라. 그래서 너랑 축구 안 볼거야.

13. 다음 문장 A~E의 순서를 재배열할 때, 가장 논리적인 문장의 순서는?

- A. 과학은 가치문제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사실의 문제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 B. 과학기술이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데 악용되어 온 곳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들이 주권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 C. 과학은 사실의 학문이자 가치중립적인 학문이다.
- D. 따라서 과학 기술 또는 연구 활동 자체에는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E. 또, 과학 기술이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에 잘 이입돼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각국의 산업발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현상일 뿐이다.

- ① B - A - E - D - C
- ② B - C - E - A - D
- ③ C - A - D - B - E
- ④ C - D - A - E - B

14. "여성의 화장"에 대한 지문이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장을 하면 못생긴 사람도 예뻐 보인다. 타고난 외모를 가진 사람도 화장을 안 하고 가꾸지 않으면 별로 예쁘지 않다.....타고난 외모보다는 내면이 중요한 것이다. 외모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 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 ②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들어 있다.
- ③ 잘못된 예를 들고 있다.
- ④ 전제와는 다른 결론을 맺고 있다.

15. 다음 시조의 내용으로 추론한 것 중 잘못된 것은?

내해 죠타 하고 남 슬흔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고 義(의) 아니면 좇지 말니,  
우리난 天性(천성)을 직희여 삼긴 대로 하리라.

- ① 타고난 천성은 착하다
- ② 남에게 해롭지 않게 도의를 지키며 산다.
- ③ 남의 의견이나 취향을 고려하며 산다.
- ④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출한다.

16. 다음 중 맞춤법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꽃봉오리가 부풀어 오른 것을 보니 봄이 온 것을 알겠구나.
- ② 비가 그치고 난 후에는 산봉우리가 가깝게 느껴진다.
- ③ 구레나룻을 기른 사람은 예술가의 분위기가 풍긴다.
- ④ 오랫동안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놀다 왔다.